



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증가와 과제

김세중 연구위원

지난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.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, 이는 종신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옵션임. 그러나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적합한 상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임.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지난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.¹⁾
 -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함.
 - 또한 상품설명서 등 각종 안내 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·단점 및 연금수령액·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하였음.
 - 최근 연금전환 종신연금을 연금상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²⁾ 이러한 조치들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, 이는 종신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적합한 옵션임.
 - 과거부터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연금수요가 증가하

1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6. 10. 12), “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”.

2)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월~9월 중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53.3%를 차지함.

면서 2010년 이후 보험회사들은 종신연금의 연금전환 기능을 부각시켜 종신보험을 판매해 왔음.

- 소비자들의 보험 수요가 사망보장에서 노후소득보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보장을 모두 제공하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판매증가는 소비자 니즈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.
-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“사적연금 활성화 대책”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보험회사에 제시했으며, 이후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출시되어 활발히 판매됨.

■ 그러나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적합한 상품이 아니며, 보험회사는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임.

-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일차적으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가 차후에 노후소득보장으로 보장니즈가 바뀔 것에 대비하는데 적합한 상품이기에 때문에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.
-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대응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집중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■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종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새로운 국제회계기준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부가된 각종 옵션과 보증을 부채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사망률 또는 이자율을 보증하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부채 증가가 가능함.
- 또한 향후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대규모 연금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.
- 따라서 보험회사는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에 있어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 [kiri](#)